

# 전남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팡파르’

## 내일까지 목포 등 5개 시·군서 첨단기술 활용 개회식 ‘눈길’ “생명의 땅 전남, 미래로 웅비”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지난 14일 낭만항구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했다. 대회는 1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비롯한 광양, 해남, 영암, 무안 등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17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이날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초청 내빈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손으로 노래하는 세

계 유일 핸드래퍼’ 김지연(청각장애인), 읍주 교통사고로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접고 패럴림픽에 도전하는 유연수(지체장애인) 등이 장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개식 통고를 했다.

공식행사에서는 선수단 입장, 주제공연, 대회기 계양, 선수·심판단 선서가 이뤄졌다. 선수단은 해군 3함대 군악대에 이어 차기 개최지인 경남도를 필두로 16개 시·도 선수단이 입장했다. 입장식에선 발광다이오드(LED)를 터치하면 각 시·도의 관광문화 자원과 참가 선수 개개인의 사진이 나타나도록 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주제공연은 전남을 대표하는 첨단기술, 꽃과 나비를 키워드로 꿈과 희망을 가

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총 3막으로 연출했다.

제1막 ‘꿈이 피어나는 곳, 전남’에서는 영암 소림학교 장애학생무용팀, 빛고을댄서스 등이 출연해 불꽃처럼 에베레가 생명의 땅 전남에서 나비가 돼 넓은 세상을 향해 날갯짓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제2막 ‘다시 한번 날갯짓’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이 출연해 장애학생 선수단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표현했다.

제3막 ‘함께 맞는 희망찬 세상’에서는 전남의 관광산업과 첨단산업 등을 레이저와 미디어로 표현해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수단이 ‘꿈이

피어나는 희망찬 전남,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에서 꿈을 이루도록 표현했다.

마지막 축하공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체전인 만큼 대회 참가 선수단과 전남 청소년이 좋아하는 5인조 여성 걸그룹 퀸즈아이와 래퍼 비오가 출연했으며 윤수현, 김나희 등 트롯가수들도 함께해 개회식 열기를 달궜다.

이밖에 개회식장 실외 부대행사로 나비 날리기, 버스킹 공연, 페이스페인팅 체험, 포디움(시상)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람객에게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체전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처럼 국민 모두가 서로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장애인체육회는 15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주 경기장인 목포종합경기장에 설치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17개 시·도별 상황실, 자원봉사센터 등을 방문해 경기 운영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목포종합경기장에 마련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각 시·도상황실은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열리는 동안 매일 분야별 현장 상황과 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 부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전남도, 우수 향토기업 발굴·육성 나선다

전남도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남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펼치며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회를 실천한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 육성한다고 밝혔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최초로 향토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총 50개사를 발굴한다. 향토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인증 기간 3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판로 지원사업 공모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우수 향토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전남에

위치해야 하며 20년 이상 사업을 유지,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기본 조건을 전제로 △경제적 기여(업력·매출액 증가율·수출 기여도·기업 신용평가) △사회적 기여(사회 기부·직원 복지·고용 증가율·장기 고용 유지) 2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10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향토기업 인증은 오는 27일까지 전남도 중소기업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5·18 주먹밥 재현 행사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양동 주민, 양동초등학교 학생, 오월 어머니들이 지난 14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열린 5·18 주먹밥 재현 행사에서 직접 만든 주먹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김양배 기자

##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치유농업 연계한다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 연계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 현황을 분석, 치유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유기농 생태마을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민 소득 증대, 마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유기농 생태마을별 자원 및 특색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 유형으로 제시한 △교류치유형 △휴식치유형 △운동치유형 등 3가지 유형을 생태마을과 접목해 유형별로 분류, 대표 모델 구축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치유농업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는 전남도농업기술원도 유기농 생태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오는 2026년까지 유기농 생태마을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매출 500억원을 달성해 주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곽지혜 기자

## 광주시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2년 연속 수상

광주시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식품안전에 기여한 식품위생업체, 식품관련 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급식관리지원센터, 관계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식품안전 유공자 42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광주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업소 수 대비 식품위생감시원 수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합동단속 참여일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수 △민원 기한 내 처리비율 등 11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식생활 안전과 위생 점검에 참여하는 식품위생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를 통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또, 안전한 유류식품 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점검 등 기초 위생관리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시, 창업기업 14곳에 실증장소 제공

### 제3회 창업제품 실증 경진대회 대상에 ㈜에스씨 크리에이티브

광주시가 올해도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역 곳곳을 시험무대로 내어준다.

지난해 광주시의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대상에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선정했다.

대상기업인 ‘㈜에스씨 크리에이티브’

는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이인’ ‘㈜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고, ‘주식회사 모바할’, ‘㈜지앤아이씨티’가 우수상을 수상해 실증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자의 빠른 이익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실증투자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에는 공모를 통해 총 44개 기업이 지원,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자율형 △솔루션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광주시의 ‘지원한 도시 조성사업’의 솔루션형에 참여해 폭염저감 제품을 실증할 2개 기업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이번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올해 자율형 기술혁신 제품에 선정된 12개사는 6월부터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맞춤 지원받는다. 또 월급1동의 차열 사업 대상지에 폭염저감 제품을 실증하는 솔루션형에는 2개사 제품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36개사를 지원,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 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최권범 기자

### 광주트라우마센터,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 운영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인 17~18일 금남로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국가폭력 생존자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를 운영한다.

오월심리치유이동센터는 광주시민의 ‘오월증후군’ 치유를 돕고 공동체 치유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운영하고 있다.

‘오월증후군’은 해마다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르면서 불안이나 답답함, 분노, 슬픔,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지칭한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17일 금남로,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센터 직원과 자원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국가폭력 트라우마와 오월증후군 설명, 치유대상자 발굴,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수집,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포 등의 활동을 펼친다. 또 고위험군 증상이 있는 경우 센터 치유·재활프로그램에 등록, 연계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